

하는 필름은 80 μ m 두께의 폴리에틸렌(PE)이 무난하다.

⑥ 냉동

플라스틱 필름으로 포장한 딸기는 바로 냉동하는데 약 -40~-60 $^{\circ}$ C의 온도에서 1~2일 급속냉동하고 이 후에 -15~-20 $^{\circ}$ C에서 냉동저장하면 필요시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딸기를 세척한 후 플라스틱 필름에 포장하지 않고 급속 냉동을 먼저 하면 냉동저장을 위해 급속 냉동한 딸기를 꺼내어 플라스틱 필름에 밀봉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청결한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한다.

⑦ 검사·출하

냉동딸기는 소포장하여 출하는데 이때 컨베이어벨트에서 이송하는 과정 중 딸기의 꼭지가 묻은 것이 있거나 외관이 불량한 것은 선별하여 제거한다. 그리고 소포장하여 박스에 포장하기 전 금속 등의 이물질질을 검사하기 위해 금속검출기를 통과시키거나, 금속탐지기가 없을 때는 냉동딸기를 깨끗한 작업대에 펼쳐놓고 이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소포장하여 상자에 포장된 냉동딸기는 냉동차를 이용하여 출하하는데 온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냉동실에서 바로 출하용 차의 컨테이너로 옮기도록 한다. ㉞

〈출처 : 농촌진흥청 녹색농업기술 2011년 4월호〉

꽃매미 알고 대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 정 구 식량축산과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포도 주산지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꽃매미는 올해도 전국에 발생되어 농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한 발생면적은 7천여ha로 전년보다 11% 정도 감소했지만, 발생지역은 10개 시도, 68개 시군으로 전년보다 20개 시군이 늘어나 확산추세에 있다.

꽃매미 방제를 위해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과원과 인근 산림에 발생한 알은 손이나 손가락 등으로 문질러 제거하며, 과원을 수시로 관찰해 어린벌레(유충)가 많으면 적용약제를 살포해 초기 발생 밀도를 줄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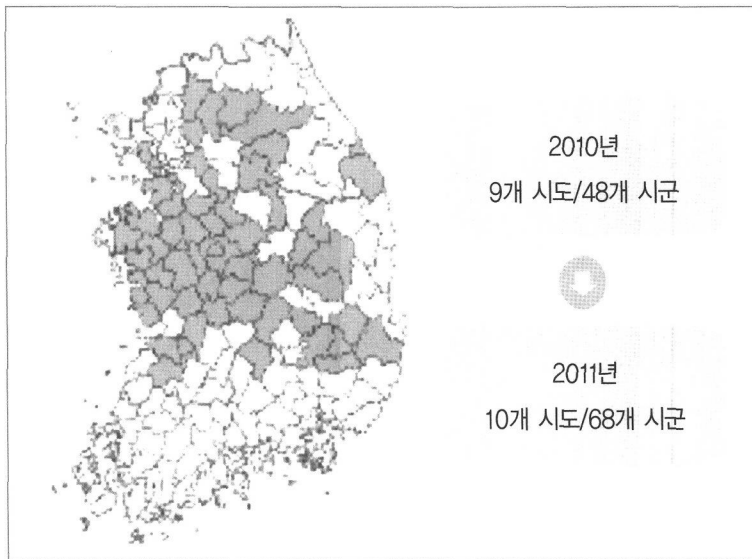
농가에서는 농약 살포 시 적용약제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과원 주변, 인근 산림 주변까지 방제해 과원으로 꽃매미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제한다. 친환경 재배농가나 발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꽃매미가 과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충망이나 트랩식물을 설치하면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과원에 설치한 방충

망은 꽃매미가 들어오지 않도록 알맞은 크기의 망이어야 한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트랩식물을 설치하면 꽃매미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 수 있다. 트랩식물은 꽃매미 기주식물인 가죽나무를 이용하여 방제약제와 포도당을 나무의 수간에 주사해 7월 이후 인근 야산에서 과원으로 날아오는 꽃매미를 유인해 제거하는 방법이다.

포도수확 후에도 알을 낳기 위해 꽃매미가 계

속 날아오므로 알을 낳기 전에 추가방제로 다음 해 발생 밀도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꽃매미는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개별농가가 아닌 마을단위, 지자체별로 협력해서 방제해야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농가에서는 꽃매미가 부화되는 5월 중 지자체별 공동방제기간에 적극 동참해 꽃매미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㉞



▲ 지역별 발생현황



▲ 적용약제 살포로 방제



▲ 외부 유입 방지위한 방충망 설치



▲ 트랩식물 설치로 꽃매미 발생 줄임

〈출처 : 농촌진흥청 녹색농업기술 2011년 5월호〉